

합격기

[제53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수험생활의 행복과 믿음



이 선 식

- 1984년 9월 생
- 전주 해성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재학
- 제53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I. 들어가며

작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영광스럽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변변치도 못한 능력으로 이런 수기를 작성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기를 작성하겠습니다.

고시를 합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역시 공부를 하는 수험기간동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수험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서 의심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후배들을 조언해줄 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고시를 볼 것인지, 본다면 무슨 직렬을 볼 것인지, 그렇다면 선택과목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등 수도 없이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들이 고시공부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일단 이러한 의심하는 시간에 공부부터 시작해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해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고민만 하는 것은 고시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무 해를 넘게 살아오면서 자신만이 습득한 공부 방법을 가지며,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굳게 믿은 뒤, 깊고 넓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것이 제가 합격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며 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II. 수험과정

1. 군 제대 후 토익공부 (2007년 1월 ~ 2007년 2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고, 군에 있는 동안 행정고시를 봐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1월에 전역하고, 토익 점수를 받기 위해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영어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앉아서 공부하는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까운 2월 말에 있었던 행정고시 1차 시험을 응시하는 기회를 영어점수가 없다는 이유로 날려 버리게 아쉬웠지만, 어차피 되지도 않을 시험에 응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합리화했습니다. 2월말에 있었던 토익시험을 보고, 3월이 되면 학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 공부(2007년 3월 ~ 2007년 6월)

재경직을 준비하려했기 때문에 경제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 1학기에 학교 수업을 미시경제원론(조필규 선생님), 거시경제학(양영준 선생님),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김정식 교수님), 현대사회와 경제(조하현 교수님 / 거시경제학과 비슷함)를 들었습니다. 또 삼일절부터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기본강의를 인터넷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당시 경제학 기본강의가 26회 정도 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기본강의를 모두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없는

틈틈이 복습을 하고 주6회 강의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기본강의와 학교수업을 서로 비교 검토해가며 복습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한 덕인지 중간고사 전까지 기본강의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황종휴 선생님의 경제학 1순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습니다. 경제학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학교 공부와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황종휴 선생님의 기본 강의와 학교에서 들은 양영준 선생님의 거시경제학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1순환 강의는 문제 풀이가 많고, 당시 인기 있던 이영환 교수님의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 문제를 이용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역시 주6회 강의를 듣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서관에서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의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보기 열흘 전쯤 1순환 강의를 모두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에는 기본강의, 1순환 강의, 학교에서 배운 미시, 거시, 화폐금융론, 현대사회와 경제를 기반으로 경제학 서브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서브 노트를 만드는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으며, 서브의 자체적 활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브는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3) 가을학기 휴학을 하면서 공부(2007년 6월 ~ 2008년 2월)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형을 소개 받아 생활스터디를 조직했습니다. 아침, 저녁에 출석체크를

하면서, 식사도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생각만큼 스터디가 조직되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제학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7월에는 이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한 김진옥 선생님의 재정학과 국제경제학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노트 복을 구입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각각 12개 정도 강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황종휴 선생님의 강의나 내가 공부했던 스타일과 많이 다르고, 경제학 기초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복습을 했는데, 경제학을 공부할 때 보다는 많이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7월말에서 8월에는 김기홍 선생님의 행정법 기본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홍정선 교수님의 책을 구입하여서 (당시 김정일 선생님은 장태주 교수님의 책으로 기본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기홍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김기홍 선생님이 지금보다 인지도가 적었기 때문에, 무조건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 행정법을 들었을 때의 혼란이 아직도 기억합니다. 행정법 첫 번째 강의가 3시간 30분 정도였는데, 그 강의를 이해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

었고 5시간이 넘게 걸려 첫 번째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강의를 들었는데, 당시 김기홍 선생님이 했던 농담들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인상 깊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뒤에는 잠시 쉬 뒤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복습을 하고, 저녁에 남은 시간은 7월에 들었던 재정학과 국제경제학의 서브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학교 도서관에 오면 컴퓨터실이 문을 여는 9시까지의 전날 행정법 강의에서 진도 나갔던 부분을 복습하였습니다.

8월 20일 경에 행정법 기본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행정법 1순환 강의를 바로 들을까 하다가, 행정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백현관 선생님의 행정학 기본강의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학은 나랑은 잘 맞지 않는 공부였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날이었고, 겨우 겨우 9월 중순에는 강의를 들긴 했지만 그냥 강의를 따라 들은 수준이었습니다.

학교가 개강을 할 9월 즈음에는 같이 생활스터디를 하는 사람들과 1차 시험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 20문제를 같이 풀고, 주6회를 하여 일주일에 3과목을 한 번씩 풀어보는 스터디였습니다. 그 스터디와 병행하여 김진옥 선생님의 경제학 기출문제의 zip을 사서 답안 스터디도 같이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경제학 답안지를 잘 써서 답안지 쓰는 스터디 시간을 매번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9월 중순정도에 학교에서 김기홍 선생님의 행정법 1순환 특강이 열렸습니다. 실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행정법을 김기홍 선생님 강의를 들은 나로서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수강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학교에서 특강 강의를 듣고, 강의를 MP3로 녹음한 뒤에, 오전에 학교에서 빠르게 다시 들었습니다. 기본강의와 1순환 강의의 농담이 비슷해서 “이 말 또 하시네.”라고 생각하며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학과 행정법 공부는 행정학에 비해서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10월 이후에는 부족한 행정학을 매우 기 위해서 이선훈 선생님의 행정학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를 바뀌어도 행정학은 듣기 고역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틀이나 개념들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의를 듣다가 절반정도에서 수강을 포기했습니다.

행정학 강의를 포기하고, 학교 중간고사 기간 직전에 김기홍 선생님의 행정법 3순환 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자고 행정고시사랑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학교에 다니던 동갑인 여자아이와 아침 8시에 만나서 같이 3순환 답안지를 쓰고, 노트북으로 같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보통 강의를 공유하는데 같이 이어폰을 끼고 오붓하게 듣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 3순환 인터넷 강의를 다 듣자, 12월이 다가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부터는 1차 시험대비 스터디량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한과목 1회씩 풀고,

일주일에 모든 과목을 2회씩 푸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 중에 두 타임을 1차 시험에 집중을 하고, 한 타임에는 2차 과목들 서브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1차 시험 공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3공과일철에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노트를 한 장, 두 장 새롭게 써나갈 때마다 뿌듯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행정법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서브를 만들었는데, 책과 자료를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하면서 내 문장으로 바꿔 쓰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4 1차시험 합격, 신림동에서 공부(2008년 2월 ~ 2008년 6월)

재경직을 지원해 1차시험을 치렀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점수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시험운이 좋아서인지 평균 67.5점이 나왔습니다. 당시 행정고시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웬지 붙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쓰자면 운이 좋게도 재정직 컷라인으로 1차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치른 1차시험에서 정말 운 좋게 합격한 것이 수험기간을 줄이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아슬아슬 했지만 붙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신림동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도 다음번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경제학 3순환 강의는 최병권 선생님

의 강의를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정학과 국제경제학을 들으면서 김진옥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에 약간 물려있는 상황이었고, 황중휴 선생님에게 기본강의와 1순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싶었습니다. 강의는 실감이 효율이 좋다는 소릴 들어서, 오후에 있던 실감을 신청했습니다.

그 3순환 강의는 신림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모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강의를 수강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솔직히 엉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20분 정도 지각을 하는 것은 예사였고, 3순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질문을 받느라 중간 쉬는 시간이 40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휴강을 하면서, 보강을 일요일에 한다고 해 놓고, 막상 일요일에 학원을 가니 선생님이 못 오신다고 말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3순환 강의를 처음이었기 때문에 뭐 모르고 듣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 3순환 강의에서 가장 많이 얻은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100명 정도 수강한 강의였고, 매번 빠짐없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 쓰는 답안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미시경제학은 점수가 생각보다 좋았으며, 최고답안으로 뽑힌 경험도 있었고, 거시경제학은 점수 편차가 심했지만 내공이 있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 3순환 강의는 김정일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김기홍 선생님의 기본강의, 1순환 강의, 3순환 강의를 듣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행정법은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행정법의 절대적 공부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은 아무것도 없이 가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매번 문제에 따라 미리 노트북으로 제작했던 서브노트를 보면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강의를 많이 들어서 인지, 논점을 못 찾은 경우는 없었으며, 서브노트를 보면서 작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서 못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점수는 매번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김정일 선생님은 자료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의를 들으면서 홍정선 교수님과 이리이러한 면은 견해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학은 이명훈 선생님의 3순환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맵과 틀’이라는 책이 맘에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행정학 강의는 힘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책을 한번 쪽 읽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준에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많았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학과 국제경제학은 김진옥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

해 놓고, 재정학은 약 1/3정도 강의를 들었고, 국제경제학은 2/3 정도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루에 공부를 두 시간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5. 2차시험과 가을학기 복학과 고시반 생활, 첫 2차 불합격 발표 (2008년 9월~12월)

실제 시험기간에도 거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생활했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제학은 잘 썼던 것 같고, 행정법과 행정학은 3문을 작성하지 못했으며 재정학은 거의 쓰지 못했고, 국제경제학은 경제학 부분을 가져다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절대 붙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정학은 과락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월에는 여행을 가면서 쉬었고, 학교의 고시반 입실시험을 치렀습니다. 8월부터는 고시반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잘 되지 않았고, 방학을 시작했던 것 같다. 방학 말기에는 정하중 교수님의 행정법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력이 매우 뛰어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2학기 수업을 복학하면서 역시 고시 공부와 관련있는 과목을 수강 신청했습니다. 행정법 각론과 행정법 연습 (김성수 교수님), 재정학 (박태규 교수님), 산업조직론 (한중희 교수님), 국제무역

론 (노정녀 안젤라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모든 과목들이 고시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 교수님의 행정법은 내가 배웠던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지만, 행정법의 관심분야가 이렇게 넓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정학과 국제무역론 수업은 고시공부를 하면 들었던 강의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고, 복습을 하는데 의의를 뒀습니다. 산업조직론 수업은 경제학 공부, 특히 과점이론의 깊이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2차 시험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점수는 경제학 72점, 행정법 55점, 행정학 55점, 재정학 47점, 국제경제학 27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합격선이 60점 정도 였는데 평균은 56점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5월 이후에 거의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집중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나에게는 2008년 2학기가 그랬습니다.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 공부를 집중하여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서브노트 작성이라는 세부적인 목표아래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홍 선생님의 강의를 기반으로 홍정선 교수님의 책을 요약한 서브에 김정일 선생님의 3순환 강의를 보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을 때는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해 표시했던 부분도, 막상 내가 정리를 하자니 별 차

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 행정법으로는 견해의 차이가 수렴되기도 하고, 답안지에 표현하는 짧은 글 속에는 논리적 차이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행정법에서는 교수님들의 견해의 차이에 집중하기 보다는 깔끔한 내 문장 만들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 1차시험 공부 (2009년 1월 ~ 2월)

다시 1차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고시반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1차시험에 능한 사람도 도서관이나 신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고시반 사람들과 스터디를 조직하고 1차 시험문제를 1월에는 1회씩, 2월에는 매일 2회씩 풀었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역시 실력이 는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고��스러웠지만 문제풀이를 계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 시험을 보고 결과적으로는 재경직 합격선에서 1문제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7. 두 번째 2차 시험 공부(2009년 3월 ~ 2009년 6월)

이번에는 2차 공부를 제대로 해보려고 신림동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고시반에서 3순환 강의를 준비하려고 생각해보았지만, 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림동에서 3순환 강의를 듣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3순환 강의는 누구 것을 들을지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경제학과 행정법은 수업을 듣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합격생들이 들으라고 조언하였고, 그에 따랐습니다.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은 김진옥 선생님, 행정법은 김기홍 선생님, 행정학은 이명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순환 강의를 듣지 않으려는 유혹이 큼니다. 물론 나도 3순환 강의 자체의 유용성에 의문이 많았고, 지금도 그 자체의 효용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순환 강의 자체의 유용성을 놓고 볼 것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순환 강의를 들었을 때와 강의를 듣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처럼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 3순환 강의를 듣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다른 진도범위를 맞추지 않고, 자신이 정한 진도범위를 공부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듭니다. 하지만 3순환 강의를 듣고 그것에 진도를 맞춰가며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의의 효용성을 넘어서 3순환 기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3순환 강의를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 배분 측면에서도 비교해서 볼 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에 고시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7시 40분부터 3순환 시험을 치르고, 9시부터 1시까지 강의 듣고, 점심을 먹은 뒤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과목에서 논점을 찾지 못하거나, 아주 허술한 답안을 쓰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실에서는 전날 본 시험의 채점해준 것을 잘 보고,

최고답안을 읽은 뒤에, 다시 강사의 예시 답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스타일로 깔끔하게 완성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정갈하게 다시 쓴 답안을 읽으면서 “이게 최고답안보다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혼자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안을 다 작성한 뒤에는 3순환 강의를 복습하고, 잘 모르던 부분은 내 서브에 첨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3순환 강의를 듣는 기간에는 저녁시간의 활용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3월달에는 전 과목의 기본서를 정독했습니다. 이영환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 특강, 이명훈 선생님의 행정학의 맵과 틀, 이준구 교수님의 재정학, 김인준 교수님의 국제경제론을 읽었습니다. 교과서는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곳이 보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향상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법 3순환이 절반정도 지났을 때 기본서 정독이 끝났습니다. 그 때부터 저녁시간에는 8시부터 50점짜리 답안을 2개 완성시키는 100점 답안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스터디는 고시반에서 맘이 잘 맞는 사람들과 4명에서 조직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가 많이 되어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실력이 다들 좋았습니다. 50점짜리 문제는 강의를 듣지 않은 다른 강사의 3순환 문제를 구했습니다. 50점짜리 강의를 2개씩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 문제부터 스터디를 시작해도 국제경제학이 끝날 쯤에는

비슷하게 50점 답안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경제학은 이상근 선생님, 행정법은 김정일 선생님, 행정학은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재정학과 국제경제학은 황중휴 선생님의 문제를 가져다가 풀었습니다. 스터디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진행했습니다. 12시부터 12시 30분부터는 스터디를 간단히 복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순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오전에도 100점짜리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면서 3순환 기간에는 답안을 많이 작성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3순환 시험을 치르고, 점심먹고 전날 쓴 3순환 답안을 다시 작성하고, 저녁에는 3순환 답안 2개를 작성했으니 하루에 50점짜리 4개를 작성한 셈인데, 이것이 실제 시험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요를 짜거나 쪽별로 세세하고 답안 작성시간을 짜지 않아도, 저절로 시간에 맞게 답안이 써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2차 시험에서도 답안작성 시간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습니디.

공부시간은 하루에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유지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가 되지 않거나 졸리면,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거나 오락실이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거나 쇼프로를 봤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7시에 아침을 먹고, 12시 30분에 집에 가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토요일에는 저녁 먹고 8시정도 까지 공부를 하고, PC방에서 새벽까지 일주일동안 방송된 쇼프로, 가요프로를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친한 사람들과 술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2차시험이 가까이 오면서 반복학습을 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아는 것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일은 훨씬 힘든 일입니다. 3순환이 끝난 뒤에 행정법은 답안 작성에 최적화하여 새롭게 서브를 작성했었고, 그것만 보았습니다. 경제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있는 서브들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답안 스터디를 계속 하였습니다.

8. 두 번째 2차 시험과 합격

2차 시험 기간에도 특별히 잠을 많이 자거나, 적게 자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장인 고려대학교까지는 3명이 모여 같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경제학, 행정법, 재정학, 국제경제학은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쓴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100점 답안 스터디를 많이 해서 인지 시간은 모두 딱 2시간이 걸렸고, 답안지는 10페이지 밑으로 3줄이 남지 않게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행정학이었는데 과락이 걱정될 정도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2차 시험에서 3문을 쓰지도 못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방심했고, 공부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예산제도와 같은 내용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든 써서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여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진 몸을

재정비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등산을 하고, 운동을 했으며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학교를 복학했고, 역시 고시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신청 했다. 가을이 되었고 2차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 중에 재정직 합격자들을 모아 면접 스터디를 준비했고, 매일 면접과 토론 스터디, 조인트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면접기간에도 솔직히 제대로 준비를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평소 성격처럼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며,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면접을 그렇게 준비한 뒤에 시험을 치렀고,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 점수는 최종 합격 발표가 난 다음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 71점, 재정학 71점, 행정법 59점, 행정학 52점, 국제경제학 29점, 평균 62점이었습니다. 결국 첫해와 비교해서 점수가 크게 오른 과목은 재정학이었습니다. 내 점수를 합격생과 비교해 볼 경우에는 크게 점수가 높게 나온 과목도 없고, 크게 낮게 나온 과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실수하지 않고 모든 과목에서 어떻게든 배점에 맞는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III. 마치며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

제는 고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여가생활을 즐기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생활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기간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신림동에서 추리링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며 여자분들은 화장하나 안하면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없는 시간이며, 다른 사람의 이복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내가 올바른 공부를 하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공부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부하는 기간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믿는 방법으로 깊이있는 공부를 했으며, 다른 사람과 고시 과목을 가지고 깊이 있는 논쟁하는 것을 좋아했습

니다. 물론 수험 마지막까지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깊이있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경제학과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쓸모없이 잡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러한 것이 소위 말하는 '내공'이 되어 나중에 그것이 필요없는 논리를 서술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내 공부 방법에 더욱 큰 믿음과 확신을 준 것 같습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논쟁이며,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게 행정고시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합격하고 이렇게 합격수기를 쓴 것은 제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함께 공부한 수 많은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합격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